

# 전국의 낙우회, 원유가인하관련 항의문 쇄도

- 평 회 -



올해 낙농산업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구제역 및 젖소 도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일선 낙농가에 원유가 32.23원이라는 폭풍이 불어 닥친것. 이와 관련 전국의 낙농단체 및 낙농가 등의 심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원유가인하와 관련 청와대, 국회, 농림부 등 유관기관에 낙농단체 및 낙우회에서 작성한 항의문이나 탄원서 등이 빗발치고 있다.

한 낙우회에서 작성한 항의문에서는 “우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낙농가들은 비유축진제 사용금지, 송아지 모유급여, 낙농 자조금 조성, 젖소 도태사업 등 낙농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젖소도태가 끝나자마자 원유가 인하(32.23원)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 원유가 인하방침이 계속되고 우

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낙농가가 함께 연대하여 쉼기대회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취할 것이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또한 다른 낙우회에서는 “우리 낙농가들은 원유가 인하를 막기위해 자식과 같은 소들을 도태했다. 낙농가들이 어금니를 깨물며 도태를 시킨 이유는 원유가 인하를 막자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도태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새로운 원유가 산정체계를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원유가 인하(32.23원)라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다. 작금의 원유수급 불균형을 생산자인 낙농가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 도태와 자조금 조성, 우유소비홍보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낙농가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정치권도 나섰다. 한나라당은 7월 19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제 막 검증을 마친 원유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것은 원인처방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와 진흥회의 정책실패와 업무능력의 결과를 낙농가에 전가시키는 적반하장이다”라고 밝히고 “문제의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학교 및 군급식 확대, 소비촉진 홍보와 대북지원 또는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근본대책으로 생산원가 절감 지원과 혼합분유의 수입억제 조치, 유업체의 낙진회 가입 및 협조 유도, 신제품 개발 등 수요확대 및 소비 증진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또한 “정부와 진흥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면 설립당시의 우려처럼 낙농진흥회의 존재 의의는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작금의 원유수급 불균형은 지난 겨울 비수기부터 계속되고 있다. 재고분유적체현상이 상회하면서 협회에서는 감산을 위해 젓소도태를 결의하여 추진하였고, 그 이후 정부와 진흥회에서 원유가 인하방안이 제시되자 낙농가들의 거센항의와 반발이 나타났다.

원유가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한 항의문이 접수된 낙우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항의문 발송 낙우회

- 경기 : 서울우유 포천군낙우회(회장: 배인호), 포천낙우회(회장: 정명석), 산내낙우회(회장: 김명석), 백운낙우회(회장: 최병화), 내촌낙우회(회장: 박경태), 매일유업 이천낙우회(회장: 김태호)
- 강원 : 빙그레연합지회(회장: 이후중), 철원군축산계(계장: 이국진)
- 충북 : 음성군 낙농연합회(회장: 심우봉), 감곡낙우회(회장: 신만순), 생금낙우회(회장: 신병국), 삼성낙우회(회장: 허병무), 금왕낙우회(회장: 박용하), 음성낙우회(회장: 이종수), 새마을낙우회(회장: 김현구), 상동축산영농조합법인(회장: 광민상)
- 충남 : 천안시 낙우회 연합회(회장: 고세영), 세남낙우회(회장: 진길웅), 강덕낙우회(회장: 안희문), 성남낙우회(회장: 이창길), 수신낙우회(회장: 신상만), 병천낙우회(회장: 주우식), 용삼낙우회(회장: 현관주), 제일낙우회(회장: 김남일), 상조낙우회(회장: 정영식)
- 경북 : 영주낙우회(회장: 석사원)
- 전북 : 익산낙우회(회장: 전정중)
- 전남 : 나주 왕곡낙우회(회장: 종상균)